

“자살은 罪입니다”

종교계, 자살 방지 캠페인·생명 존중 사회 만들기 나서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에 이어 모방자살이 늘어나면서 자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사회 분위기를 우려해 종교계가 교파를 초월해 자살예방에 동참하고 나섰다. 이들은 생명 존중을 강조하는 특강이나 세미나, 자살방지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물론 서적도 출간하고 있다.

마음의 무거운 짐 내려 놓고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그 고마움
세상과 함께 나누길...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는 11월 10일 광주 서구 쌍촌동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사회교리학과 과정으로 '그리스도교의 생명관'을 주제로 강의를 연다. 광주 가톨릭대학 오갑현 신부가 강사로 나서 육체의 건강과 관련된 생명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자살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등을 전할 예정이다. 한국교회희망연대, 한국대학선교회 등 개신교 단체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 자살은 죄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1월 13일 오후 7시30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도집회를 갖고 '희망축제'를 개최한다. '희망축제는' 수확능력시험을 치른 청소년들의 탈선과 이탈행위를 막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서울 영락교회 등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임동진·이정길·정영숙·정태우 등 한국기독교문화예술연대 소속 연예인들도 함께한다. 이에 앞서 목회사회학연구소는 오는 11월 6일 오후 7시 서울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예배실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등 기독교 단체와 함께 '자살문제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또 세미나 이후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영문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소장, 김충렬 한국상담치료연구소장, 정재영 실천신학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우울증과 기독교인의 자살 ▲한국사회 자살의 경향과 교회 ▲자살에 대한 교회의 대책 등을 발표한다. 또 실천신학대 대학원의 조성돈, 정영재 교수는 개신교의 시각에서 자살의 원인과 교회의 책임 등을 분석한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예영 커뮤니케이션)를 최근 펴냈다. 이들은 교회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예방하는데 고민하고 자살을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하며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지난 17일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신형 대표를 비롯한 한국기독교 사회 원로들과 시민단체가 모여 '자살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준비 모임을 결성하고 국민과 사회, 정부에 공동 노력을 촉구하는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불교계 원로인 법정 스님은 지난 19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 대중법회에 참석해 "마음의 짐이 무거운 사람들은 절이나 교회를 찾아 짐을 내려놓고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그 고마움을 세상과 함께 나누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종교칼럼



박병주

요즘 한국사회는 마치 정신병동과 같다. 울들어 4번째 문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서운 사회다. 서울 논현동 고시원 문지마 살인 사건 범인은 인형 뽑기 놀이에 하루 160만원 쓸 정도로 영혼없는 집착하던 사람이다. 또 방에 틀어박혀 식탁에 놓아둔 물병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런 증상들은 '사이코패스' 전형적인 특징이다. '사이코패스'는 겉으로 멀쩡하지만 무슨 계기가 생기면 난폭하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반(反)사회적 성격장애자를 말한다. 무책임, 무감정, 양심의 결여 등 이기적인 특징들은 '사이코패스'들로 하여금 잔인한 연쇄살인을 가능하게 만드는 최적의 요소들이다.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들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경험했다고 한다. 지난 6월에는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7명을 갈로 찢어 죽인 문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의 동생은 자기 가정에 대해서 말하기를 "가족들이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는 적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논현동 고시원 사건의 범인도 범행동기와 관련해 "어릴적부터 주변

사랑과 격려의 힘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무시를 많이 당해 심적 고통이 컸다"고 진술했다. 반면 같은 날 신문에는 사법시험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2차까지 합격한 시각장애인 최영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최영씨는 "고3 때 시력을 잃어 사법시험을 포기하려 했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6번 도전 끝에 합격하게 됐다"며 친구들에게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가 이러한 신체적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던것은 자신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가족과 주변 친구들의 도움이 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 최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는 '재기에 성공한 상징적인 인물'로 재미교포 스티브 최(한국명 최정범)씨가 소개됐다. 그는 12살 때 미국으로 이민가 술한 어려움을 극복한 뒤 지금은 2천만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성공한 기업인이 됐다. 그는 생계가 어려웠던 고등학교 시절 화업을 중단하고 하루 17시간씩 일한 경험도 있다. 어렵게 대학을 마친 뒤 30명의 종업원을 둔 여행사를 운영했지만 한국의 IMF사태로 빚만 지게됐고 이후 그는 자살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한다. 그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비결로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신앙이요 또 하나는 가족의 힘이였으며 이 두 가지가 불굴의 의지와 더해져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지마 살인자와 시각장애인고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격려가 있다면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광주 열린교회 담임목사>

광주 장애인 복지 실천 대상 후보자 추천하세요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복지와 인권 향상에 앞장서 온 개인 및 단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2008 광주 장애인복지실천 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복지실천 대상은 지역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적 전기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대상은 복지인권, 사회통합, 자원봉사 3개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된다. 지원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오는 11월 3일까지 소개서, 공모신청서, 추천서, 공적조서 등을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 접수(광주시 북구 동림동 24번지 광주장애인총연합회)하면 된다. 문의 062-513-1080.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죽음도 잘 준비해야 '웰 다잉'이 곧 '웰빙'

'죽음의 의미' 잇단 세미나
바르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는 '웰 다잉'이 잘사는 것(웰빙)의 완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죽음의 의미를 철학, 정신의학, 종교적인 관점에서 살피는 세미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의료와 구호활동을 펼치는 천주의 성모 수녀회는 지난 28일 오후 5·18 기념분화센터에서 '누구나 가야 할 길 죽음과의 만남'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남대 인류학과 김경학 교수의 '죽음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을 비롯해 전남대 의대 박종태 교수의 '죽음에 관한 법의학적 접근'과 가톨릭대 철학과 신승환 교수의 '죽음에 대한 인간학적 성찰' 등이 발표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여성개발원은 오는 11월5일 서울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잘 죽는다는 것'(웰다잉)의 의미와 실천적 방안 등을 토론하는 '웰다잉 문화 운동을 위한 불교의 과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 '웰다잉에 대한 종교적 고찰'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은 월호 스님(승계사 승가대 교수,선학박사)은 "삶과 죽음은 이어지는 것이므로 자신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웰빙이고 웰다잉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동국대 영문과 김예주 교수와 정토사 관자재회 이사장 능행 스님이 '웰다잉 문화운동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한다.

광주 엠마우스복지관,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



광주엠마우스 복지관(이하 복지관)은 30일 오후 광주시 서구 쌍촌동 시영아파트 앞에서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지역 사회 캠페인'을 펼쳤다. '더 좋은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31일 오후 1시 광주시 북구 오치동 주공아파트 앞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광주 엠마우스복지관 제공>

뚜껑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첨단 3,000명

11월 14(금) 오픈

11월 14(금) 장윤정

광주첨단·특소존엄 호박 나이트

15일 16일 조망조	17일 18일 송대관	20일 21일 최진희	25일 26일 박현빈	27일 28일 김수희	4일 5일 심운도
-------------	-------------	-------------	-------------	-------------	-----------